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

OCTOBER 2020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02

2020 첫번째 골프대회



Wallkill Golf Club에서 대회를 시작하며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많은 회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신 것이 눈에 띈다



Wallkill 골프장내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시상식을 하고 있는 회원들

9월 3일 Wallkill Golf Club에서 있었던 올해 첫번째 골프대회 보고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COVID-19로 인하여 여러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모두 30명이 참석하셔서 재미있고 즐겁게 회동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와 카트 운행시 마스크 착용등으로 모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중에 진봉일 선배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도중에 송근숙 회원님과 같이 먼저 가셔서 아쉬웠습니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왔었지만 경기 당일은 아주 운동하기에 적절한 온도였는데 끝난 후 귀가시에 비가 다시 내려 날씨에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골프장의 컨디션은 최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이 부진했던 가운데 1부(여성포함)에서는 1등 권정덕 2등 우규환 3등 홍예경 2부에서는 1등 김영만 /임도혁 3등 최병우 회원이 수상하셨습니다. 이번에 입상하신 분들은 규정에 따라 핸디를 조정하였습니다.

Close pin은 파3 4홀 모두를 시상하였는데 3번홀 김병순 7번홀 이대영 11번홀 오우섭 15번홀 김광현 회원이 입상하셨습니다. 이번에 guest로 참가하신 천병수 동문 부부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골든클럽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입회를 환영합니다.

골프총무 김정필 드림

골든클럽 2020년 10월 골프대회



골든클럽에서는 올해 2번째이자 마지막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 일시: 10월 29일(목) 11:00am (10:00am 도착 요망)
 장소: **Philip J Rotella Golf Course** (Haborstraw)
 2200 Thiells Mt Ivy Rd.
 Pomona, New York 10970
 참가비: \$100 (Green fee, lunch/dinner 포함)
 특기: 각자의 기량과 선호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game을 진행하니, Senior tee group은 1부,
 Regular tee group은 2부로 신청해 주십시오.
 Par 3 Close pin은 4 홀 모두에서 시상합니다.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jaypkim@keiusa.com)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학기금 모금 추계 골프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계획했었다가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뉴저지의 명문 선셋밸리로 동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일시: 10월 7일(수) 11:00am (10:00am 도착 요망)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jaypkim@keiusa.com)

장학기금에 관하여는 뉴욕동창회 회장이며 장학위원장인 조상근 동문에게 문의 바랍니다.

조상근: (201) 913-0565 amcoinc@msn.com
 Check payable to: SNUAANY
 Mail to: Sang G. Cho
 281 Orangeburg Road
 Old Tappan, NJ 07675

골든클럽 가을 산행 안내



Covid19 사태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오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지침과 Corona Virus 예방 준수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가을 산행을 계획하면서 관심있는 회원 가족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각자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는 행선지를 가까운 Harriman State Park로 하였으며, 점심 도시락도 개별 준비하도록 합니다

- 일시: 10월 21일(수) 9:00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중간 주차장
 산행지: Harriman State Park 5마일 정도
 준비물: 마실물과 점심 도시락 개별 준비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뉴욕동창회 2020년 송년회및 총회 안내

뉴욕동창회에서는 2020년 송년회및 총회를 전년과 같이 포트리에 있는 Double Tree Hotel Ballroom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다채롭고 흥겨운 만남의 광장을 계획하고 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그동안 적조했던 만남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하여 협찬을 해주실 동문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 날짜: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시간: 오후 5시 -10시
 서울대 뉴욕동창회장 조상근
 이사장: 정해민

Golf Outing 첫 참가 소감 - 웃픈 현실.

주상선 (공대73)

2월 초 Florida에서의 골든클럽 Golf 여행 이후, 모든 행사 계획이 취소되다가 7개월 만에 열린 9월 3일 Golf Outing에 참석했다. 거의 6개월 동안, 최소한의 Costco, Whole Foods, H Mart 장보기 외에는 손주들도 FaceTime 으로 만나고, 생일 등 집안 행사도 Zoom으로 하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면서 버텨 왔다. 병원 정기 검진도 미루다가, 행사 1주일 전에 하면서 항체 검사까지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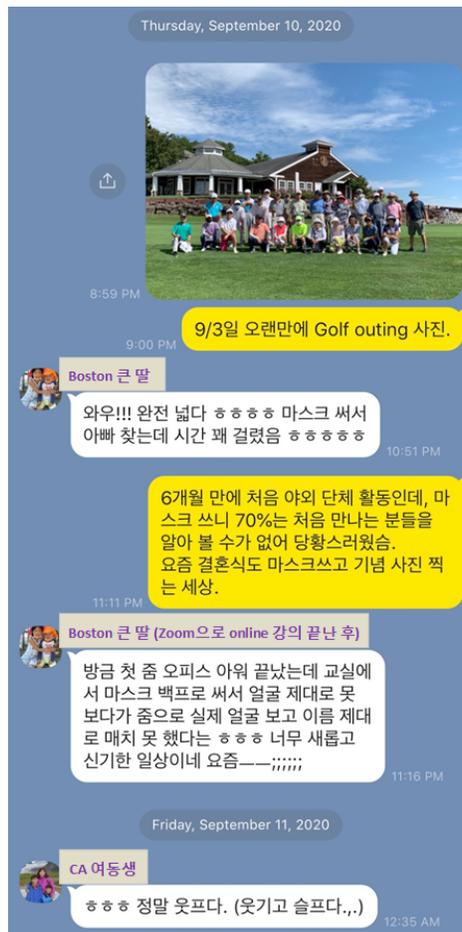
현재 뉴욕 지역의 COVID-19 test의 positive 비율은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잠재적인 무증상 전파 가능자가 100명당 1명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대처하면서 가능한 대인 접촉을 최소화 하고 있는 중이다.

야외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30명이 모이는 행사라 다소 불안감이 있었다. 참석하는 회원들이 어느 정도의 연배가 있어, 가장 조심하는 그룹에 속하고, 자기 관리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낮아, 균이 침투했다면, 보통 5일정도에는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의 조금 알고 있는 확률 지식을 동원하여 판단한 결론은 이번 행사에 균이 침투할 확률은 0.1% 이하(1,000회의 유사 규모 행사에 1회 정도)로,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조심하면, 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Long Island를 벗어나, Throgs Neck Bridge를 건너면서 일단은 해방감에 기분이 상쾌했다. 골든클럽에 가입하고, 처음 outing에 참석하다보니 직접 만나본 회원이 몇몇되지 않는다. 그런데, 골프장에 도착하니,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화상회의로만 얼굴을 익힌 회보 편집회의 member 조차도 알아보기 힘들어 잠깐씩 마스크를 제끼고 인사를 나누었다. 서로 조심스러워 경기 중이나, 친교 시간에도 제한적인 교류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쉬웠다.

Outing 1주일 후에 받은 단체 기념 사진을 근황 소개 겸해서 가족 카톡방에 올렸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을 보고, 큰 애가 본인 경험으로 응답 했다. 대면 수업할 때는 100% 마스크를 쓰고 하여 제대로 얼굴을 못 보다가, online 수업을 할 때는 얼굴은 보는데, 이름을 제대로 몰라 당황해 하는 큰 아이의 경험담이 전혀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게 좀 씁쓰레하다.

이러한 상황을 남가주의 여동생이 '웃프다'로 정리 했다. 2012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어휘라고 하는데, 요즘의 현실을 잘 표현한 듯하다. 웃픈 현실.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천병수 회원, 공대 70학번

(T) 917-340-2281

(E) kevinbchun@gmail.com

(A) Kevin Chun

27 East Street

New Hyde Park, NY 11040



오유섭 회원 Age-shooter

오유섭회원이 9월 6일 총연장거리가 6008 야드인 Meadow Golf Club (Par 71)에서 76타를 쳐서 Age-shooter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제일 오른쪽이 오유섭회원



강에드 (사대 60)
 노용민 (의대 49)
 손대홍 (미대 69)
 우규환 (사대 60)
 이정필 (의예 58)
 임호순 (공대 52)
 조달훈 (사대 66)
 흥정표 (음대 67)

노년의 풍요로운 삶이 되려면

(골든클럽의 내일을 기대한다)

여주영 (뉴욕한국일보 고문)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David Riesman은 1950년에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류의 역사적, 사회적 성향이 시대적으로 변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문제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지적했다. 즉 군중속의 고독, 풍요속의 빈곤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각종 이기와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한 것은 아닌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 혹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내 주변에 같이 연결돼 있는 많은 분들은 거의 70년-80년대 미국에 이민 와서 나이가 지금 대개 70-80세를 전후한 분들이다. 바로 지금 골든클럽 회원들 대부분의 나이이다. 이들은 일찍이 한국과 미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웬만큼 자리 잡고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다. 다행히 골든클럽의 회원들은 모두 고립감 같은 것 모르고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즐겁고 보람있게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늘 부러움을 갖고 있던 차, 흥중만 부회장으로부터 폰 메시지가 왔다. 골든클럽 회보에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뜻밖의 요청에 순간 당황했지만 ‘오는 것은 막지 말고 가는 것은 잡지 말자’는 것이 나의 신조이고 보니 싫든 좋든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원들이 대한민국 최고 상아탑인 서울대 출신으로 나이도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고 보니 학력으로 보나 경험, 지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출중하고 대단한 분들이 아닌데, 그런 조직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것을 빼다는 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인생 대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몇 마디 늘어놓게 되었다. 나 역시 늙어가는 입장인데, 무엇이 그분들과 크게 다를 게 있겠으며, 무슨 할 말이 사실 많이 필요할 것인가.

단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건강하게 지내면서 동문 선후배, 그리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사회에 일조하며 살다 갈 수 있을까 생각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다 가면 될 것을...

세월은 자주 달려가지만 잡는다고 멈춰지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서 반갑게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한 명, 두 명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행사에서 가끔 뵈던 한경수씨도 얼마 전 동문들의 결을 떠났다. 이런 서글픔을 영국의 저명한 작가 Charles Lamb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All, all are gone, the old familiar faces”

모두 모두 갔다, 옛날의 그리운 얼굴들/ 오늘은 여기 살아 있지만 내일은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리라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정말 무서운 건 세월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바로 옆에 있던 동문 선후배들, 누가 먼저 내 결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갈 뿐이다.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들. 우리에게겐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면서 마감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그동안 골든클럽은 늘 마음 가까이에 와 있고 남의 집인 양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30년 이상 한 직장에 머물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 여러 기관이나 단체, 동문회 등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골든클럽에는 더 많아 골든클럽이 마치 나의 친정집과 같다. 기자 시절 만난 분들을 포함해 양인회씨의 컴퓨터 Zoom 클래스에서 접하는 분들까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 나이가 나보다 많다 보니 다 언니, 오빠들 같아 어

디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반가울 분들이다. 이런 저런 연유로 골든클럽에 대한 나의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골든클럽은 열심히 살아온 회원들이 모두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실제로 회원들은 골프대회, 골프여행, 산행, 바다낚시, 피크닉, 문화, 예술 명승지 탐방 등을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며 보내시는 것으로 안다.



지나해 뉴욕동창회 신응남 회장이 개최한 강미자 초청 음악회 보고 겸 가진 만찬 행사에서 참석하신 서울대 동문 부부들과 함께 한 사진

특히 뉴욕, 뉴저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클래스는 참가 회원들의 두뇌 활성화와 치매예방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시대에 발맞춰 매주 맹렬하게 공부하면서 생활에 엄청난 활력을 찾고 있다. 이제 그들은 상당수가 전문가 수준 뺀치고 있다. 나 역시 몇달 전부터 이 클래스에 참여해 혜택을 톡톡이 보고 있다.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나는 지금 매주 신문에 기고하는 나의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유익하고 고마운지 모른다.

또 오래 전에는 골든클럽이 개최하는 Minnewaska State Park 산행에 한 차례 합류한 적이 있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화

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고 “아, 골든클럽이 동문들에게 참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처럼 골든클럽은 회원들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기구이다. 노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이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노후의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20여년 전에는 골프 몇 동문이 모여 즐기기 시작하다가 10여년 전부터는 이준행 전 회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직을 재정비해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동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하면서 화합과 단합을 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골든클럽의 회보지만 보더라도 동문 선후배간의 우애와 따뜻한 함이 넘쳐나는 분위기가 곳곳에 엿보인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좀 더 다양성을 꾀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모여 혜택을 받는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마침 회보도 정기 월보로 발행되고 앞으로 더 알찬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점은 노후에는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행복해지는 법, 활기차지는 법, 새로워지는 법, 사랑스러워지는 법, 감사하는 법, 발전하는 법, 즐거워지는 법, 편안해지는 법, 차분해지는 법, 당당해지는 법, 여유로워지는 법 등을 먼저 익히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인생을 선물 받았다. 때문에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영원히 허무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당신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답할 것인가. 그때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나만의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인생을 정처 없이 떠도는 방황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으로 만드는 가장 옳은 길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 100세 시대라고 하더니 이제는

120세 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그만큼 노년층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70-80세대는 청년이라는 말이 나온지 오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그 답은 일반적인 예상처럼 흡연이나 음주 같은 차이, 경제상황,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아니었다.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다고 한다. 친구 수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고, 친구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수록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동문 선후배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골든클럽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회원들은 이제 전보다 더 골든클럽에 대한 애정을 갖고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노년층이 새겨두었으면 하는 글이 있어 이곳에 옮겨 본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다.

- *값지게 보내야 한다.
-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
- *쉬지 말고 배워라
-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그래야 여한 없이 살게 된다.
- *좋은 친구와 만나라
- *덕을 쌓으며 살아라
- *미움과 섭섭함을 잊어라
-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모든 것을 수용하라
- *병과 친해져라
- *틈만 있으면 걸어라.
- *욕심을 버리고 낙천가가 되라.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하나 바람이 있다면,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며 생을 즐기되 사회 엘리트층으로서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골든클럽의 더욱 발전적인 내일을 기대한다.



골든클럽 회원 부인들과 함께

장동만 회원 에세이 QR Code -고뇌하는 젊음이여 -아! 멋진 새한국

장동만 선배께서 '살아가며 죽어가며' 이전에 써 놓았던 두 권의 책-'고뇌하는 젊음이여!', '아! 멋진 새한국'을 QR Code에 수록하여 Bookmark를 만들어 80매를 보내왔는데, 지난 골프대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46매가 남아있어, 이번 회보 발송시 동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보에 간단한 소개와 QR code Bookmark을 게재하면, Bookmark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도 두 권의 책을 열어 읽을 수 있습니다.

QR code를 전화로 찍으면 "Tap here to go to qrcode.de in your browser" 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안내를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책자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인쇄분에 실린 QR Code (2개)입니다.
오래 전 써놓았던 두 권의 책- 각각 350~400페이지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뇌하는 젊음이여!
Think Big!



아! 멋진 새한국
A Brave New Korea



QR Code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거나, 또는 QR Scanner를
down 받아 스캔하시면 됩니다.

일본 영화 명작 소개

윤현남 (공대64)

反共防日이 國是였던 때 자란 탓으로 일본 영화를 처음 접한 것은 1970년 유학 오고 나서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향수 사이를 오가던 때여서 어느 것은 한국 정서와 거의 똑 같고 또 어느 것은 전혀 이질적인 일본 영화를 많이 즐긴 것 같다. 일본 명화 중 내가 즐겼던 몇 편을 소개하려 한다.

Tokyo Story (1953, 오즈)



일본 영화 감독 중 가장 명성이 높은 네 사람은 미조구치 겐지, 오즈 야스지로,

쿠로사와 아키라 그리고 고바야시 마사키를 뽑는다. 이 중 오즈 감독은 일본 서민사회의 애환, 전후 일본가족제도의 붕괴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경 이야기도 한 노부부와 자식과의 갈등과 며느리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해안 소도시에서 막내딸과 사는 히라야마 노부부는 도쿄에 사는 장남과 장녀를 만나러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피폐화된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기도 힘이 들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온천 관광지 아타미로 보낸다. 시끄럽지만 한 아타미에서 제대로 잠도 못 이루다 일찍 동경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만이 그들을 진심으로 모신다. 짐이 되는 것이 미안해 시골로 돌아가고 곧 어머니는 병으로 숨을 거둔다. 자식들은 장례식이 끝나자 도쿄로 돌아가고 며느리만 남아 시아버지를 위로한다. 시아버지는 죽은 아내의 시계를 노리코에게 주며 새 출발하라 권한다.

Ikiru (1952, 구로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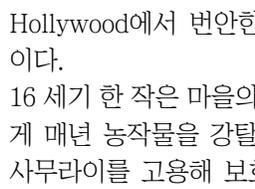
이 영화는 76년 Montreal에서 post-doc할 때 보았다. 학생회관에서 일본 영화 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세시간 동안 눈 한 번 깜짝 않고 본 기

역이 생생하다.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해주는 영화이다. 십여년 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매번 감동 받고 생각하게 만든다.

와다나베는 은퇴가 가까운 구청 과장으로 아무 일도 않고 지낸다. 어느 날 불치암이란 진단을 받는다. 홀아비로 아들 키우느라고 일생을 바쳤는데 이젠 아들하고 얘기가 통하지도 않는다. 왜 살아왔는지 의미를 찾고 싶어 여기저기 헤맨다. 소설가를 만나 같이 유희가를 돌면서 쾌락을 찾지만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으니 찾으러 온 발랄한 젊은 여직원과 시간을 보내며 젊은 삶의 에너지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다 죽기 전에 시청에서 자기가 무시해 온 시민들의 청원인 동네 공원을 실천해 주자고 결심한다.

Seven Samurai (1954, 구로자와)

대학생 때 본 Yul Brynner와 Steve McQueen이 주연한 The Magnificent Seven의 원작이다. 일본 영화를



Hollywood에서 번안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16세기 한 작은 마을의 농부들은 강도들에게 매년 농작물을 강탈당한다. 해결책으로 사무라이를 고용해 보호받으려 한다. 농부들은 음식과 숙소밖에 제공할 수 없지만 무사로 경험이 많지만 낭인이 된 시마다 칸베 (the great Toshiro Mifune)를 만나 부탁한다. 그는 7명의 낭인 사무라이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모집하여 마을로 향한다. 농부들에게 기본적인 자기 방어를 가르치고 마을 자체를 강화한다. 준비가 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강도들이 들어 닥쳐 많은 손실을 보지만 성공적으로 마을을 보호한다.

Human Condition (1959-61, 고바야시)

“인간의 조건”은 1958년 출간된 장편 소설로 2차대전 중의 군국주의를 일본인의 영혼에서 밀어내고 주변국 희생자들에게 사

과를 하는 소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책 많이 읽던 고등학생 시절에 흥미 있게 읽었다. 영화는 총 3편으로 길이가 합해서 모두 9시간 반이다. 고바야시 감독은 평화주의자



로 유명한데 이 영화를 비롯해 다른 명작들 (Harakiri, Samurai Rebellion)이 모두 전쟁, 사무라이가 배경인 것이 특이하다.

1편: No Greater Love

2차 대전 중 평화 주의자인 가지는 군에 가는 것보다는 아내 미치코와 함께 만주의 작은 광산에서 감독 일을 선택한다. 그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고 광산 생산을 개선하려 애쓴다. 그러나 헌병대에서 중국군 포로 600명을 광산으로 끌어들여 포로들과 경영진 사이에서 의심을 받는다. 부패한 시스템을 바꾸려 하다 부패한 동료의 농간으로 체포되어 빨갱이라는 지목을 받으며 군대로 보내진다.

2편: Road to Eternity

가지는 관동군에 보내져 선임병에게 학대를 당한다. 그곳에서 일본 군대의 잔인함을 직접 목격한다. 신병 오바라는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친구 신조는 국경 너머로 탈주한다. 그리고 최전선으로 보내져 러시아 전차 사단과 가망 없는 전투를 치르게 된다.

3편: A Soldier's Prayer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완패하고 가지는 아내 미치코를 찾으러 남만주로 향한다. 만주 땅의 적진을 가로 지르는 동안 다른 생존자들이 그룹에 합류하지만 그들은 계속 중국 민병대와 소련군을 대적해야 한다. 도중에 여자들뿐인 마을에 도착하였다가 소련군에게 잡힌다. 포로수용소에서 그는 일본 파시스트나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포로 학대는 차이가 없음을 경험한다. 미치코를 다시 만나기 위해 캠프에서 탈출하나 만주 설원에서 쓰러지고 만다.



Shoplifters (2018, 코레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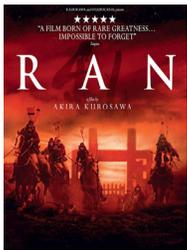
일본 영화의 황금기가 50, 60년대였다면 그 후로는 좋은 작품이나 명감독이 별로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코로에다 감독이 “Nobody Knows”, “Like Father, Like Son” 같은 문제 많은 가정 속의 사람들의 humanism을 그리는 영화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사무와 노부요 부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모인 “가족”은 도쿄의 한 빈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다. 수입은 조금 있지만 죽은 전남편의 연금과 필요로 하는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오사무는 상점에 팔리지 않은 물건은 실제 누구의 소유가 아니므로 도둑질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루는 학대받고, 길에 나와있는 5세 소녀를 발견하여 집에 데려간다. 그녀의 이름도 바꾸고 자기 딸처럼 키운다. 막내 “아들”은 소녀를 데리고 도둑질하다 실패하고 경찰은 이 소매치기단을 찾기 시작한다. 이 가정의 쌓인 비밀들이 들쳐 나오기 시작한다.

Ran (亂) (1985, 구로자와)

셰익스피어의 <King Lear>를 일본의 전국



시대로 옮긴 구로자와 감독의 시대극으로 그는 75세에 만든 <란>이 마지막 작품이고 “인류에게 남기는 유산”이라고 말했다. 장대한 비주얼, 화려한 색채, 음악, 전투

scene 그리고 극단적인 구도는 마지막 최대의 걸작을 남겨야 한다는 그의 집념이 보인다. 촬영 중 원하는 영상과 사운드를 얻기 위해 스태프들과 격렬한 다툼을 벌인 것이 유명하고, 30초짜리 장면의 촬영에 8개월의 시간을 들이는 등 독재에 가까운 완벽주의를 보였다.

일생 동안 전력을 다해 전국 시대를 살아남아 3개의 성을 거느리게 된 영주 히데토라는 장남에게 영주 지위를 물려주고 세 아들에게 성을 하나씩 맡기겠다고 선언한다. 막내 아들은 이는 형제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게 될 뿐이라며 어리석은 짓이라 반대한다. 자식에게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히데토라는 막내 아들을 추방한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남은 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둘은 가증스러운 싸움을 시작한다.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히데토라는 들판을 헤맨다.

위 영화들은 Amazon Prime Vide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You'll Never Walk Alone

LIVERPOOL, 2020 Champion of the English Premier League

정도현 (공대57)

"You'll Never Walk Alone" is a song originally from the Rodgers & Hammerstein musical "Carousel" and later became the Anthem of Liverpool Football Club since the early 1960s and sung by the Anfield (Liverpool Stadium) crowd during the match. This year the Liverpool FC finally won the Championship of the EPL after 32 years of drought (1st time during the Premier League Era).

Liverpool FC is an English soccer loyalty along with the Manchester United (Man U) and is one of the best supported club in the world as well. Domestically, the club has won 19 League titles, more than any other club except Man U, 15 FA Cups and 6 UEFA Champions League (the most for an English Club). The club had many notable managers including the legendary Bill Shankly who famously said, "I am disappointed to hear people said that Football is the matter of Life & Death, It's lot more than that."

Liverpool's rivalry with the Man U stems from the cities' competi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and they dominated the league for a long time until 1990s when Liverpool had a run of hard time coinciding with the Man U's success in the Premier League-era. But things began to change when, an American, John Henry (owner of the Boston Red Sox) bought the team in 2010 and, after the near miss of the title in 2014, he hired a German Manger (Formerly manager of Borussia Dortmund) named Jurgen Klopp.

Jurgen Klopp is the most Un-German like character with bearded tootsie smile wearing heavy dark rimmed glass with wild animated gesture. He reminds me of Marcello Mastroianni than cool Franz Beckenbauer. But he

has an uncanny ability to motivate players as well as fans enthusiasm. He won the UEFA Champion's League Title in 2019 but lost EPL title to Manchester



City by one game. Finally, Liverpool won 2020 EPL title with an absolute dominance. Soccer world considers him one of the three best mangers in the business now (the other 2 includes Pep Gaudiola of Man City and Jose Mourinho of Tottenham).

Klopp's magic touch comes from his unorthodox method of selecting players to fit into his system of complex puzzle. Together with his technical director, using data analytics, just like "Moneyball Pioneer" Billy Bean, Oakland Baseball General Manager, he somehow targets the undervalued players in the transfer market. He brought in Egyptian Striker Mo Salah, known as brilliant but inconsistent, Sadio Mane, little known Senegal speedy winger, and Roberto Firmino, unspectacular Brazilian. These 3 on forward line jelled immediately and became the most dominating attacking force in the EPL.

However, Klopp's greatest heist was a Dutch Center Back, a late bloomer, Virgil Van Dyke. This towering field general not only dominates opposing strikers but also ignites offense with a long accurate pass.

Most of the Liverpool players are mid - late twenties and they are reaching prime of their career. I see Liverpool's dominance quite a foreseeable future under a steady leadership of manager Klopp.

회원 명단 (104명 / 2020-09-22)

강교숙	김영덕	손경택	유무영	임도혁	최준희
강에드	김영만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최진영
강영선	김우영	손옥화	이강홍	장동만	최철용
계동휘	김익성	송근수	이국진	고애자	최학주
곽상준	김인형	송응길	이기덕	정도현	추재욱
곽선섭	김재경	송현자	이대연	정수일	한영수
곽승용	김정필	송학린	이대영	정해민	한용오
구달회	김종울	신진식	이범선	조달훈	한태진
권영대	김창수	이정자	이수호	조승자	허용웅
권정덕	김태일	신원철	이전구	조상근	홍사만
권태전	김현중	신응남	이정필	주상선	홍정표
김광수	노용면	양인회	이종대	주재양	홍종만
김광현	민준기	오 성	이종석	진봉일	홍예경
김동건	박기환	오순문	이준행	최병우	홍지복
김병순	박희병	오용호	이준희	최구진	
김문연	배상규	오유섭	이용대	최병우	
김상만	성기로	오인석	이행순	최수용	
	손갑수	우규환	이흥빈	최순채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09-22)

1월	1/26~2/1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3월	28 (토)	신년교례회 - 취소
4월	16 (목)	Opening Golf Outing - 취소
	30 (목)	Hiking, Harriman State Park - 취소
5월	13 (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취소
6월	11 (목)	Golf Outing - 취소
	24 (수)	Picnic, Pizza Party - 취소
7월	9 (목)	Golf Outing - 취소
	22 (수)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 취소
8월	6 (목)	Golf Outing - 취소
	20 (목)	BBQ Picnic, Westchester County Park - 취소
9월	3 (목)	Golf Outing - Wallkill Golf Club
10월	7 (수)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 Sunset Valley Golf Club
	21 (수)	Hiking
	29 (목)	Season-off Golf Outing
12월	5 (토)	뉴욕동창회 송년회및 총회
2021년		
1월	27~31	Florida Golf Trip
3월	27 (토)	신년교례회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80명 / \$8,000 / 2020-09-22)

강에드	김상만	손갑수	오용호	이행순	최준희
강교숙	김우영	손경택	오유섭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익성	손대홍	오인석	임호순	한영수
곽상준	김인형	손옥화	우규환	장동만/	한용오
곽선섭	김재경	송근수	이강홍	고애자	한태진
곽승용	김정필	송응길	이국진	정도현	허용웅
구달회	김종울	송현자	이범선	정해민	홍사만
권영대	김창수	송학린	이용대	조달훈/	홍정표
권정덕	김현중	송학린	이용대	조승자	홍종만/
권태전	노용면	신원철	이정필	주상선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신진식/	이종대	주재양	
김동건	박기환	이정자	이종석	진봉일	
김병순	박희병	양인회	이 준	최병우	
김문연	배상규	오 성	이준행	최수용	
김상만	성기로	오순문	이준희	최순채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17명 / \$6,100 / 2020-09-22)

곽선섭 100	성기로 300	이행순 200
곽승용 200	손경택 1,000	임호순 300
권정덕 200	송학린 500	정해민 500
김광현 100	우규환 200	최철용 300
김동건 200	이강홍 300	한태진 500
김종울 200	이준행 1,000	

위 통계외에 2021년 연회비 (김상만 송학린), 2021년 후원금 (송학린 1,000)이 선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뉴욕새힘장로교회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육관
 100 Rochelle Ave, Rochelle Park, NJ 07662

공적집회가 허용될 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대체합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